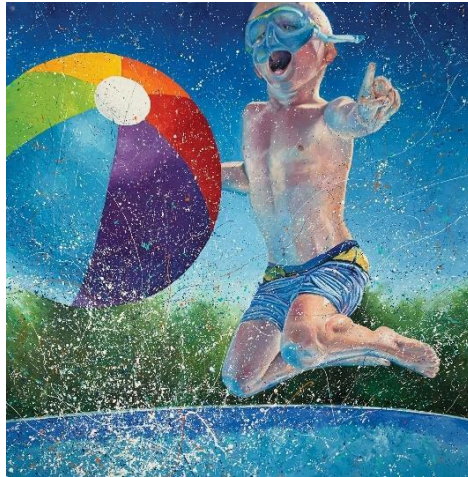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드리밍(California Dreamin')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존 웨인 공항 예술 프로그램에서 유화, 아크릴, 섬유 미술을 선보이는 그룹 전시회 *캘리포니아 드리밍(California Dreamin')*을 개최합니다. 제프 플레밍, 조앤 글래드스톤, 마리아나 이바노바, 제프리스 무어, 멜리사 A. 머피, 케빈 쇼트 등 6명의 재능 있는 오렌지 카운티 작가들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비치 라이프만의 아름다움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담하고 다채로운 전시회에서는 태양, 모래, 바다를 표현하는 각 작가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여름이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제프 플레밍은 자신만의 회화 이념에 대해 "예술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구도를 조합하여 역동적인 정신을 창조합니다. 예술은 시선을 사로잡고 감정에 호소해야 합니다. 제 그림은 동반자이고 개성과 스타일이 있으며 제 그림을 보면 영감을 느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기에는 수영장이 너무 좋아(Too Pool for School)
제프 플레밍, 수용성 오일, 2021년 작

잔잔한 파도 위로 반짝이는 빛과 해변으로 걸어오는 서퍼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케빈 쇼트 작품의 주요 특징입니다. 쇼트의 그림이 표현하는 빛과 색이 어우러진 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고민거리가 적고 생각이 분명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활동하는 벽화가 멜리사 A. 머피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작품보다 작은 작품을 통해 파도 아래 숨겨진 마법 같은 세계를 선보입니다. 멜리사는 녹색과 파란색이 연출하는 모든 색조를 활용하여 바다 속 생물들이 즐거워하는 순간을 유쾌하게 포착합니다.

다양한 그림을 선보이는 이 전시회에서는, 그림 외에도 마리아나 이바노바의 섬세한 십자수 작품도 선보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 도시의 거리를 거닐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가로등과 랜턴이 선사하는 빛, 아름다움, 우아함, 신비함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바노바의 작품들은 자신의 추억을 간직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조앤 글래드스톤의 유쾌하고 상징적인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인명 구조 타워에 이르기까지, 오렌지 카운티 비치 라이프의 단면들을 포착한 조앤의 그림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소박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보스턴 대학교 순수미술학과와 라구나 예술 및 디자인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20년 넘게 비치 라이프를 담은 유화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스프링클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I' ll Have Sprinkles)

조앤 글래드스톤, 지클리 프린트, 2023년 작

제프리스 무어의 활기 가득한 극사실적인 그림은 바다의 아름다움과 위험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바다의 강력한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의 대형 회화 작품 *신의 손(Hand of God)*은 이번 전시에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신의 손(Hand of God)

제프리스 무어, 캔버스 유화, 2021년 작

전체 작품 컬렉션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은 터미널 A, B, C의 보안 검색대 근처 위쪽 출발층과 수하물 캐러셀 2와 4가 있는 아래쪽 도착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존 웨인 공항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cair.com/terminal/artexhibits에서 확인하십시오.

###